공간이라는 존재 속 '생성·확장·순환'하는 색채 향연

이강욱 초대전 '끝없이 광활한 하나'展…12일부터 예술공간 집

'The Gesture' · 'Invisible Space' 등 40여 조형적 관계 탐구
붓의 속도·리듬·압력 변화로 선과 형상 독자적 움직임 부여

미시와 거시의 세계를 오가며 존재가 비롯된 근원적 실재를 찾아가는 이강욱 작가의 회화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전남광주에서 펼쳐진다.

하나에서 무한으로,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생성과 확장의 순환을 사유하는 이번 전시는 동시대 한국 미술의 흐름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의미를 더 할 예정이다.

예술공간 집은 오는 12일부터 12월12일까지 이강욱 작가의 기획초대전 '끝없이 광활한 하나(One, Infinitely Vas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랜 시간 미시와 거시의 세계를 오가며 탐구해 온 작가의 회화적 사유와 조형적 변화를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한국 신추상 회화'의 한 흐름으로 평가받는 이강욱 작가의 주요 연작 'The Gesture'와 'Invisible Space'를 중심으로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강욱의 회화는 작은 점과 입자, 반복되는 선과 붓질에서 출발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미세한 형상들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서로 중첩되고 관계를 맺으며 거대한 공간을 형성한다. 가까이에서는 개별적인 형상과 붓질의 흔적이 드러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이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광활한 세계로 펼쳐진다.

전시 제목 '끝없이 광활한 하나'에는 작가의 세계관이 담겼다. 작은 형상들이 반복되고 축적되는 생성의 과정과 그로부터 확장되는 무한한 공간, 무수한 개별성이 모여 이루는 하나의 전체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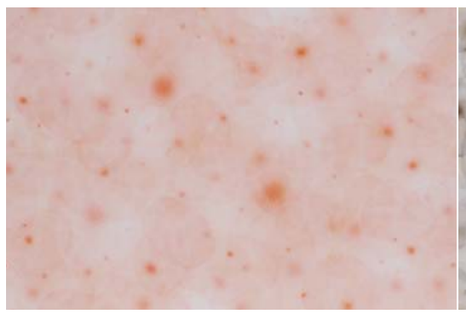
대표 연작인 'The Gesture'는 작가의 신체적 움직임과 붓질의 흔적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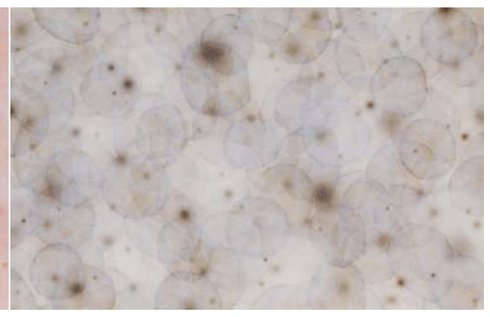
붓의 속도와 리듬, 압력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선과 형상은 화면에 독자적인 움직임을 부여한다. 회화를 완성된 이미지가 아닌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작업이다.

'Invisible Space'는 세포와 미립자처럼 눈으로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미시 세계에서 비롯된다.

작은 입자와 형상들이 시선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 거대한 우주적 공간처럼 읽히는 것이 특징으로 작가는 이를 통해 상상과 인식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는 이강욱 작가 기획초대전 '끝없이 광활한 하나(One, Infinitely Vast)' 전시 전경


'The Gesture W26031'


'The Gesture W26021'

이번 전시는 작품과 전시 공간의 관계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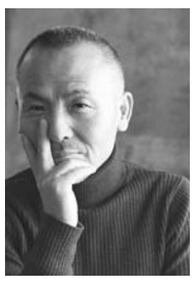
그간 예술공간 집은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가와 전시를 소개하며, 지역 안에서 새로운 예술적 담론을 만들어 왔다.


'Invisible Spaceimage 22014'

오는 2027년 개관 10주년을 앞둔 예술공간 집의 이번 전시는 서울과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이강욱 작가의 작품을 광주에서 소개, 지역 관객들이 동시대 한국 미술의 흐름을 접하고 지역과 동시대 미술의 접점을 넓힌다는 의미도 더한다. /오복 기자

방향을 본다는 것

강운의 캔버스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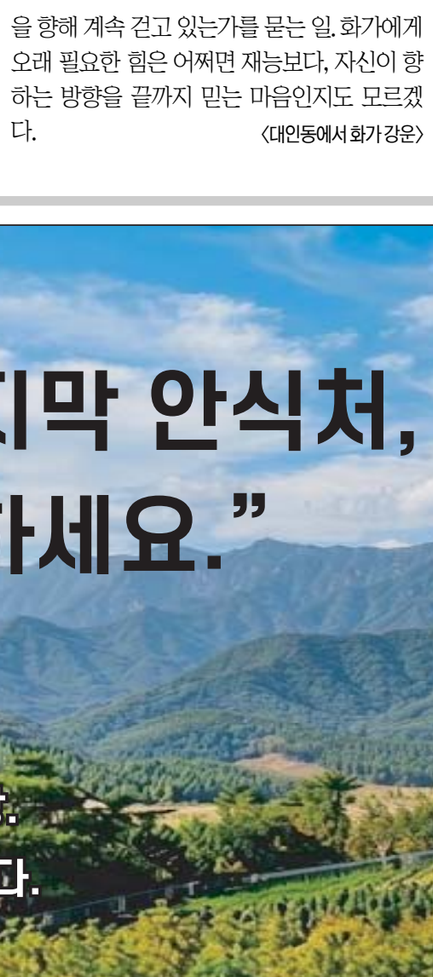
전시가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다 다음 일정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작품을 고르고, 사람을 만나고, 설치 날짜를 맞추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 요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 써저리에서 'Operation Cloud' 전시를 준비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오랫동안 구름을 그려 왔다. 처음에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모양을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에 더 마음이 갔다.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듯, 마음 속 감정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색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내게 색은 마음이 잠시 얻은 몸과도 같다.

지난 사비나미술관 전시 '색으로 태어나다'에서는 마음이 어떻게 색이 되는지를 돌아보았다. 이번 'Operation Cloud'에서는 그렇게 태어난 색의 안쪽을 다시 들여다본다. 새로운 그림을 무리하게 더하기보다 오래된 작품을 다시 꺼내 지금의 작업과 나란히 놓아 보았다. 그러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관계가 보였다. 그때는 몰랐던 마음이 지금의 그림 안에서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칠한 색은 다음 색에 덮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아래에 남아 화면의 깊이가 된다. 사람도 비슷한 것 같다. 지나온 기쁨과 상처, 실패와 후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 때로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오래 뒤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은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을 보려고 한다. 조금 늦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쪽을 놓치지 않는 것. 무엇을 이루었는가보다 무엇을 향해 계속 걷고 있는가를 묻는 일. 화가에게 오래 필요한 힘은 어쩌면 재능보다, 자신이 향하는 방향을 끝까지 믿는 마음인지도 모르겠다.


'생성(生成)-마음의 문'

〈대인동에서 화가 강운〉

민화로 재탄생한 '일곱 빛깔 호랑이'

무등전통민화회 제9회 정기전시회…오는 18일까지 일곡갤러리

전통 민화의 깊은 색채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전시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를 중심으로 전통 채색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남전(南田) 김연수 화백의 제자 7명이 참여하는 제9회 무등전통민화회 정기전시회가 오는 18일까지 전남광주 북구 일곡갤러리에서 열린다.

'일곱 빛깔의 숨결: 민화로 피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강지나, 김희옥, 박화선, 이진영, 이화영, 조영숙, 최미경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해 무수한 반복을 통해 작업을 완성하는 '기다림의 예술' 민화 작품을 선보인다.


최미 경作 '숲의 군주, 기쁜 소식을 품다'

이번 전시의 공통 주제는 '호랑이'다.

작가들은 전통 채색 기법을 바탕으로 스승 김연수 화백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저마다의 개성을 용맹하면서도 해학적인 호랑이의 모습을 통해 담아냈다.

이화영 무등전통민화회 대표는 "회원 모두 호랑이 그림을 한 점씩 준비한 만큼 관람객들이 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일곱 빛깔 호랑이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리길 바란다"며 "호랑이의 힘찬 기운처럼 관람객들의 삶에 평안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복 기자